

특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국헌공 권식과 漢文小說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17

오랑캐 장수가 말하였다.
“죽인 바가 이미 많으니, 그쳐도 되겠습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아직은 아니다! 이곳에서 떨어진 안주(安州), 평양(平壤) 등은 모두 큰 진영(鎭營)이다. 조선 땅으로 나아가도 물러나는 일은 오직 내가 지휘할 것이니, 병사들은 계속해서 엄습하고 죽도록 지휘하여라.”
이윽고 홍립의 군대가 지나가는 도중 능한성(凌漢城)에 이르자, 성안의 사람들은 오랑캐 기병이 들뜬 채 성을 압박해 움을 보고는 싸워 보지도 않고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홍립이 오랑캐 병사들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조여 왔는데, 성안에 가득한 사람들의 목숨을 순간 동안에 결단하니, 그 잡혹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다.

청천강(淸川江) 서안에 이르자, 오랑캐 장수가 말하였다.
“두 곳에서 살육한 것이면 위엄을 보이기에 충분하니, 안주(安州)에 사람을 보내어 강화환이 좋겠습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잠시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홍립은 자신과 함께 오랑캐에 투항했던 무인(武人) 박난영(朴蘭英)을 안주로 보내어, 성문 앞에서 크게 소리 질러 강화의 뜻을 전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절도사 남이흥(南以興)은 병마우후(兵馬虞候) 박명룡(朴命龍)을 성위에 올려 보내 응답하도록 했다.
“목을 자르든 장군은 있어도 강화를 하는 장군은 없다!”
남영이 오랑캐 진영으로 돌아와 보고를 하자, 홍립이 버럭 성내어 말하였다.
“조선이 아직도 잘못을 뉘우쳐 고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더 도살함”이 옳다!”

병사들을 몰아 동북쪽 모서리에서 곧장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남이흥은 목사(牧使) 김준(金浚)과 함께 군루(軍樓)에 앉아 분신 자결했다.
성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울부짖으며 허둥지둥 달아나 숨었다. 홍립은 한윤과 함께 오랑캐 병사들을 나누어 둘러싸고 풀 베어놓듯이 살상하니, 시체가 거리를 메우고 유흥이 도랑에 가득한데, 거의 다 마구 찢어 죽인 것이었다.
이때 홍립과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경포수(京砲手)로 성을 지키던 중, 마침 홍립이 말을 달려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죽이려는 것을 보고는 곧장 말 앞을 막아서며 부르짖었다. “사도(使道)께서는 조설의 대인(大人)이시거늘, 여짜하여 살육을 금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너는 나와 동향인이라는 옛적이 없었으면, 감히 내 말의 고백을 잡고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구족(九族)이 이미 몰살당했기 때문에 돌아와 원수를 갚는 것이니,

어찌하여 금하겠느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부분께서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지 몇 년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헛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홍립은 말하였다.
“그런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사도의 속부 진장영감(晉昌令監)은 지금 조정에 벼슬아치로 계시고 사도의 만아들도 아직 옛집을 보전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홍립이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한윤이란 놈에게 속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마침내 오랑캐 장수를 급히 불러서 당장 면사(免死劄)를 올리게 하여 살육을 중지시켰다.
이어서 한윤을 매 꾸짖고는 그와 절교하였다. 그 후, 평양(平壤), 황진(黃津) 등의 진영에서는 오랑캐의 사나운 기세를 보고는 맞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 달아나 천리 사방에 사방하 없다는 소식을 듣고, 홍립은 기뻐하였다.
“이번에 군대를 이끌고 온 것만으로 조선 팔도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급히 평양에 도착해서, 4대문(四門)에 방(榜)을 붙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팔도 도원수 금국 대장군(八道都元帥金國大將軍)을 겸한 강홍립은 부로 군민(不老軍民)과 문무관(文武官),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置散)에게 알리노라.
이번에 대군을 일으킨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토벌하여 분신 편안히 하고 따르게 하고자 함이니, 반마음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각자 농사짓고 누에치기 바라노라.
산림(山林)이나 여항 사이에는 반드시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펼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며, 공평에 뜻을 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만나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 스스로 사냥고 민첩한 자를 중 원근에 뜻이 깊은 자들은 일제히 응하라! 홍립은 애당초 ‘방문(榜文)이 널리 퍼지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조응하여 응하는 사람이 없자, 탄식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호걸(豪傑)들이 응하여 이르지 않음은 참으로 한스럽구나!” 한윤이 옆에 있다가 손뼉을 치며 말하였다.
“어리석구나. 홍립이여! 그토록 사람 죽이기를 삼대 배듯이 하고서도, 어찌 사람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대를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너의 속마음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홍립이 성내며 말하였다.
“사람 죽인 것이야 내 본심이 아니라 모두 네가 시켜서 그렇게 한 일이다 오직 한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고 난 뒤러야 대시는 결판날 것이다.”
이에 박난영(朴蘭英)의 아우 규영(葵英)을 평양성 수비대장으로 삼고, 병사를 나누어 진영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마침내 군대가 진군하여 황해도 평산(平山)에 이르렀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려 진창길로 변하자, 이곳에 머무른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晚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晚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그러므로 그는 “신하가 간언을 함에는 반드시 직언을 해야 하니,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고해야 하며, 은폐하여 잘못을 거짓 꾸미거나 근거 없는 말이나 지엽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同上書, “論語·憲問)”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조정 중의 몇몇 대신의 행동거지를 비판하기를, 그들은 국가 대사에 대해서 “黜陟上心, 防微杜漸” 할 수 없고, 또 “正色立朝, 有不可之節”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소인배들과 함께하여 소인의 권세를 양성하고, 소인이 권세를 얻은 후에는 감히 바른 말로써 저지하지 못하여 국가의 禍를 조성하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는 賢才를 등용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골라내어 “得人之道”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권득기는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면 “반드시 천하의 현인을 등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임금은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며 반드시 그를 위해 官을 설치하고 職을 나누어서 다스려야 하기(“晚悔集”附錄·家狀)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 賢才를 등용해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관리가 현인이 아니면 즉 “모든 일이 잘못되며”, 관에서 현인을 얻을 수 있으면 즉 “百官이 모두 좋아하니”, 곧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모를 기르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으니, 잡초를 제거해야 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강조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되 반드시 현인을 등용하고 사악한 자를 물리쳐야 하니, 현인을 얻어서 함께 다스린 즉 나라의 다스림이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고, 아울러 또한 “사람을 얻은 즉 다스리고 얻지 못한 즉 어지러워 진다”는 귀한 결론을 얻었다.

권시는 그의 부친의 관점을 계승하여 “賢者任位·能者在職, 取其長所·適其村(“炭翁集”附錄·家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에 취할만한 賢才가 있어 등용하려면, 즉 반드시 “관리가 많은 폐단을 징벌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도태시켜서 비로소 진정으로 進賢退邪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임금은 또한 마땅히 “得人之要”를 중시해야만 하는데 “中” 즉 “中立不倚, 無所偏倚”와 “和” 즉 “從容中節, 無少差謬” 두 가지를 이룸으로써 장차 인재를 식별하고 선별할 수 있으며 비로소 치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단지 “中”과 “和”에만 이르러도 賢者는 비로소 즐겁게 쓰임이 되며 不賢者는 선하게 변하니 “得人之功, 庶幾之疑, 斯在是矣(同上)”이다.

다섯째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행하고 정치의 실효를 강구한다. 권득기·권시는 왕도정치를 제창하여 仁義로써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중시하고 조정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행하고 백성을 仁하게 하는 실효를 거둘 것을 요구하였다.
권득기는 “嚴禁”중에서 “신은 듣건대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시행할 수 있고, 백

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자는 백성을 仁하게 하는 실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임금이 된 자가 이러한 마음으로써 仁政을 행할 수 없으면 즉 다스림의 실효가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養民” “富民” “保民” 등 일련의 實事·實政·實效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1) “養民은 농사에 힘쓰는 것이 근본이다.”
권시는 “爲政多端”이라고 하면서, 만일 무엇이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 근본인데 백성을 기르는 것은 즉 농사에 힘쓰는 것이 근본이다(“炭翁集”券二講大學衍義)”라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은 세금을 가볍게 하고 大同法을 개선하여 “什一而稅”를 행하는 것이다. 그는 조정이 大同法을 제정하여 이전에 각종의 貢物을 징수하는 방법을 없앴으로써 어느 정도는 농민의 무거운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조정은 세금이 고르지 못함을 염려하고 백성들의 근심함을 걱정하여, 비로소 대동의 정책을 베풀었다. “炭翁集 券二 論大同稅疏”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대동법의 실시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하나는 세금이 고르지 못하여 농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다. 각지의 세금 징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湖西는 10두이고 湖南은 13두이며 畿內는 즉 16두이니 그러므로 “호남의 백성이 모여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호서는 10두이고 호남은 13두이니 이것이 어서 조정이 호서의 백성을 편애함이 아니겠는가!” “畿民의 곤궁함은 타도의 10배인데 호산과 8두를 더하니 그 원망함이 심하다.(同上)”라고 하였다.
세금의 부담이 고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는 대동법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른바 “대동 정책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잘 하면 양반이지만 잘못하면 원망이 쌓이고 큰 폐해를 끼치는 것이니 조정에서 잘해야 한다(同上)”고 하였다.

그 개선 방법은 즉 전국 각지에서 공평하게 什一稅制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什一, 天下之中正也.” “오늘 날의 농민의 소작은 밭 1결에서 취하는 것이 미가 百斗이나 세금은 이 십두가 나가니, 즉 정말로 什一이다.(同上)”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농민에게 징수하는 상황은 완전히 “什一”세제의 원칙과 같지 않으니, 규정된 납세액 외에 또 이른바 “三手糧” 등 기타 세미를 더 징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두 번째는 세수액이 그 해의 풍흉을 구분하지 않으니, “근년에 대부분이 흉년”이나 오히려 일찍이 상·중·하의 세금을 부과하여 “혹은 上上之稅를 초과”하나 백성들의 원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는 조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民爲邦本, 政在養民”과 “養民則農爲本”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此豈益下之義, 什一之政乎”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조정은 마땅히 대동법을 개선하여 실제법을 추진함으로써 세금을 가볍게 하여 “養民則農爲本”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